

자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인연과 은애는 덧 없는 것

모구관자도(母狗觀子圖)

어미개가 새끼강아지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 그림은 90.7cm x 39.6cm의 단원 김홍도가 그린 내리그림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이다. 원래는 모구양자(母狗養子)라 하여, 어미개가 자식을 기른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의 내용이 물론 바라보고 지켜주는 것도 기르는 과정의 일환이므로 별 무리없는 명칭이기는 하나 절을 먹고, 직접 활아주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보다 바라보는 것이므로 관(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김홍도의 모구양자도 (90.7cm x 39.6cm, 간송미술관 소장)

나가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 곳에서 놀다가 혼자만 돌아왔다.

며칠 후 그가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집을 싸는 스님의 집으로 찾아오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다. 스님은 순간 섬뜩한 느낌을 느꼈다 한다. 물이나 먹이를 쥐고 안먹고 가만히 앉아 스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 나가는 개를 보면서 스님도 가슴이 아팠다 한다.

스님은 한국에 돌아와 일제말기의 엘리트로서 고향 면장을 지내면서 양가집 규수에게 장가들어 금지옥염 외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5살 생일 때 밖에 나가 놀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아들 때문에 부인은 대들보에 목을 매고 자살하고, 이 스님은 전국을 거지꼴을 하고 찾아다녔다. 어느 날 묘향산 보현사에 들르니, 주지스님이 삼칠일(21일)만 잠을 안자고 기도하면, 자식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말에 21일을 잠을 안자고 기도했다.

기도 마지막 날 사시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순간, 마당에서 "아빠!" 하는 그 리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다 보니, 사랑하는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마당의 아들에게로 달려가니 아들은 갑자기 산길로 내달린다. 아들을 쫓아 산길을 가다가 막다른 곳에서 아들은 획 돌아서서 싱긋 웃다가 갑자기 평하는 소리를 내며, 일본에서 버린 강아지로 변해 사라져버렸다.

스님은 그 일 이후로 세상을 덧없이 보고, 출가하셨다 한다. 인연과 은애(은애)는 실로 무섭고 덧없기도 한 것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김홍도가 그린 '모구양자도' 새끼 향한 어미개 사랑 담아

따를 수는 없다. 인연과 업보의 설화들을 보면 그 내용은 더욱 절절해 진다.

충청도 어느 절에 삼천배(三千拜) 스님이란 별호(別號)로 불리는 스님이 한 분 계셨다. 스님은 절에 들어온지 20년 동안 산문(山門)박이나 바깥세상을 상징하는 해탈교(解脫橋)를 한 번도 건너 가지 않고, 절 안에서 매일 삼천배를 했다. 그 연유가 잠으로 기가 막히다.

이 스님은 젊은 시절 일본으로 유학 가서 법학을 전공했다. 동경에 도착해서 집을 풀은 곳이 어느 하숙집이었다. 그 하숙집에는 갓 태어난 새끼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스님이 워낙 개를 좋아해 하도 애빠하다 보니 강아지는 주인 보다 스님을 더 따랐다.

스님이 다른 하숙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강아지가 스님에게서 워낙 안떨어지려고 하니, 하숙집주인이 데려가도록 허락했다. 이시간 하숙집에서도 몇 년을 키웠는데, 이 스님이 이제 공부할 때가 되었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가 되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보통 현해탄(玄海灘)을 건너는 관부연락선이 주가 되었나 보다. 그런데 배에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현편이 못되는 것을 아는 스님은 키운 지 5년이나 되는 개를 고민하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먼 곳을 소풍을

중광 스님 10주기 추모전 '非·色·非·空'

3월 26일까지 갤러리 아트링크서 필묵·서예·도자 등 30여 점 전시

중광 스님(1935-2002)은 '갈레 스님'이나 '매드몽크(mad monk)'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주로 기이한(奇人)인 삶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정규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화단의 이단아이자 파계승으로서 그의 화업은 생존 당시 극과 극의 평가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를 먼저 알아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매드 몽크'로 미국에 소개한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학 동양학과 교수였다. 이렇듯 국내 화단의 이면과 세상의 평가에 초연하게 '괜히 왔다 간다'는 말을 남기고 중광 스님은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갤러리 아트링크는 3월 25일까지 '중광 10주기 추모전-非·色·非·空'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중광 스님의 삶과 예술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광 스님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극찬마저도 중광 개인에 머물러 있었다. 다양한 작품 장르나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의 이해보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평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중광 스님 예술 전반에 드러나는 노골적인 성(性)의 문제만 해도 관객입장에서는 터부와 인간의 본성 사이에서 늘 충돌했다. 선(禪)의 문제 또한 달마나 학에 국한된 것인지 아키텐이나 도자 행위예술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인지 여부가 늘 혼란스러웠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작가 개인의 성취나 정체성은 물론 중광 스님 예술의 사회적 평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선(禪)을 코드로 성(聖)과 속(俗), 무법(無法)과 유법(有法), 동양과 서양을 넘나

든 스님의 삶과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는 주제 면에서 동심 성 어머니 종교 자아는 물론 도구재료적인 측면에서 붓과 먹은 물론 브러쉬와 아크릴 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필묵으로 그린 달마와 학을 비롯해 서예와 아키텐과 브러쉬로 그린 추상과 구상의 유화작품 도자 테라코타 등 장르별 대표작 30여 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기인이나 이단을 넘어선을 코드로 삶 예술 종교가 하나가 된 대자유인 중광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아트링크는 "이번 전시는 중광 예술에 있어 전통이나 선의 문제, 그리고 서구미술의 영향과 소화 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며 "특히 획을 모든 예술의 근본으로 간주하는 서예의 입장에서 선과 어떤 관계 속에서 중광 예술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지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02)738-073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손수 채마밭을 가꾸신 법정 스님

MBC스페셜, 법정 스님 제2주기 다큐멘터리 방영

자연주의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던 법정 스님은 늘 자연과 교감했다.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손수 채마밭을 가꾸며 간소하지만 충만한 삶을 추구했다.



법정 스님 임적 제2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을 재조명한 프로그램이 방영돼 눈길을 끌었다. MBC 스페셜은 3월 9일 '법정 스님의 채마밭' (이현숙 연출)을 방영해 수행자·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법정 스님, 그리고 인간 법정 스님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었다.

제작진은 법정 스님 임적 직전까지 머물렀던 강원도 산골 오두막을 취재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임적 이후 하나 돌씩 밝혀진 스님의 면모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마지막까지 스님의 결을 지켰던 주치의와 그의 최후 목적담을 들려주었다. 또한 고된 투병 중에도 남몰래 독거노인들을 도우며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제주도 마을 등 끝까지 인행일치의 삶을 보였던 법정 스님의 모습도 담았다. 엄격한 자기질서와 일식이찬(한 상에 반찬을 두 가지 이상 올리지 않음) 등으로 대표되는 법정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도 공개됐다.

차(茶)에 대한 법정 스님의 남달랐던 애정과 법정 스님표 곡수레시피까지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삶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렸던 스님의 삶을 담았다. 프로그램은

MBC 홈페이지(www.imbc.com)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운)는 11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을 그리며'를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했다.

최근 음반 <무소유의 노래>를 발표한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법정 스님을 대표하는 산문집 <무소유> <출로 사는 즐거움> <아름다운 마무리> <오두막 편지>를 노랫말로 담아냈다.

피리와 대금, 해금 등 우리악기와 아코디언이 함께 어우러져 법정 스님의 말씀을 잔잔하게 전했다.

이나은 기자

서정시인 문태준, 5번째 시집 '먼 곳'

전통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문태준(42)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먼 곳>(창비 권)이 출간됐다.



토속적 정서를 바탕으로 탁월한 언어 감각과 특이한 시풍으로 서정시학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던 문태준 시인의 내놓은 4년 만의 작품이다.

이번 시집 <먼 곳>은 이전 시 세계와는 색다른 면모와 한결을 더 진화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체로 거른 듯 더욱 정갈해진 시어와 티 없이 맑고 선명한 이미지에 불교적 사유의 깊이가 도드라진 감성

적인 시편들이 눈길을 끈다. 사물을 바라보는 세밀한 관찰력, 느낌의 삶에 대한 곁려한 성찰, 인생의 무상함을 관조하는 중요한 마음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실려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이나은 기자



장애인 삶 우리의 다르지 않아... '달팽이의 별'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후원자·자원봉사자들은 3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화 '달팽이의 별'을 단체관람했다. 영화 '달팽이의 별'은 달팽이처럼 오직 손가락 끝으로 세상을 보고 듣는 시청각 중장애인이었던 썬와 척추장애로 남들보다 아담한 몸집이지만 마음만큼은 바다처럼 커다란 순호 씨가 만들어가는 빛나는 사랑이야기이다. 조동섭 기자 cestana@hyunbul.com

Advertisement for the book 'Money, Sex, War, Karma'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by David Roy.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and holding a coin, with text asking questions about modern society's dilemmas and offering answers through Buddhist teachings. Contact information for Bulkwang Publishing is provided at the bottom.